

건축문화 **사랑**

Vol.042 10. MAY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05

042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인터뷰_ 사람&issue
광주/ 건축사사무소 서로 정광민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북/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백석중 교수

시론 02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 -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 ..._ 서재형

설계경기 03

광주 교통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특별기획 04-05

'광주정신'의 건축적 형상화를 시도하는 "광주폴리 II"

동양건축 06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4부_ 이왕기

사람 & issue 07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과의 인터뷰_ 정광민

친환경 건축 08

흙과 건축 이야기 1부 / 흙건축의 역사와 현황_ 황혜주

螢窓雪案 09

"건축을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_ 백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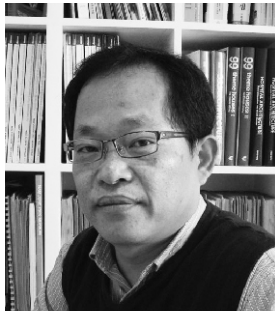
“인권과 공공공간” 광주폴리 II



틈새호텔 (In-between Hotel) / 서도호

투표(vote) /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 –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



서재형 건축사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지난 4월 30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주 87명과 건축사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사람의 건축사로서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의 창달을 지향하는 본지의 모든 관계자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죄와 함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씁니다.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소위 ‘업자형 건축사’, 또는 설계기술자로 인식하고 행정절차 수행에 주력하는 ‘허가방형 건축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건축사들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건축사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와 건축을 맡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민의 몫이고 건축주의 몫이다.

바람이 있다면, 대학에서 5년제 건축학과가 도입 된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었는데, 그 후배들에게 만큼은 이번과 같은 불명예가 대물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항변할 수 있는 몇몇한 건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라는 주제로 열린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건축가 승효상(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시작된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비록 작은 시설물이지만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한 도시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당초의 계획대로 100여개의 폴리가 연차적으로 설치되게 되면, 광주의 도시공간은 건축거장들의 역량에 의해 새롭게 단장될 것이며, 건축의 힘으로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그래서 좌절감마저 들 정도로 충격이 컸기에 건축사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무책임한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 견에서는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엄격한 직업윤리 및 성숙한 기술력으로 도시구조, 건축문화, 삶의 질 등을 위해 사회에 공헌하는 건축사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견에서는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건축사도 있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건축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건축사는 물론이고, 그동안 사회적 책무를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존경을 받았던 건축사들마저도 그간의 노력과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낳았다. 건축사라는 것이 낮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한탄할 정도였다.

자정의 노력과 신뢰회복 방안이 필요

그러나 한탄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건축사 모두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수교육과 엄격한 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는 오히려 사회적 또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모든 건축사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치유될 수 없다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추된 건축사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던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변명거리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건축에 대한 구태의연한 인식과 건축설계시장의 붕괴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세계적

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를 이루어 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개발논리에 휩싸여 도시와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와 서민들과 밀접한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건축사의 작품창작활동을 인정하기 보다는 건축설계기술자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모든 도시마다 유사한 유형으로 빼곡히 들어서 있는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숙침 원룸)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시대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및 발주방식은 건축사들의 창작의지를 꺾고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과도한 제살깎기식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실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절반이하로 추락한 건축설계비는 16년이 지나도록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의 횡포와 농락으로 오히려 삭감되었으며, 결국 그러한 건축설계시장의 붕괴는 건축사들의 창의적인 작품활동을 옥죄고 있다. 심하게는 저가설계비는 물론이고, 불법과 편법을 자처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수주할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시민과 건축사가 함께 건축문화 창달

하지만 어디까지나 핑계는 핑계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건축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인한다. 자의든 타의든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준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사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건축사들만의 노력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건축은 소유자나 설계자 및 이용자 등 몇몇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사회의 공유물이며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도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나아가서는 도시구조와 건축문화에 대한 더욱 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건축사들에게는 건축사헌장과 건축사 윤리선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는 드높은 문화의식으로 수혜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감히 청해 본다. ☐

건축사헌장

1. 건축사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2. 건축사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건축사는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4.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5. 건축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건설의 선봉이되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건축사의 수입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절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광주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미래지향적 조형미를 추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지향하면서 경제성(관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과 예술성을 갖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경기를 진행함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490번지 / 부지면적 : 21,57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및 교통약자 지원센터 등
 심사위원 명단 : 이재홍, 이규남, 신태양, 강백룡, 신석균, 장구식, 김청호

- 당 선 작 1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김 혁 건축사
- 입 상 작 2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류연창 건축사
- 입 상 작 3위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협의하여 미게재

광주 교통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김 혁 건축사

건축면적 : 3,706.28㎡
 연 면 적 : 4,794.59㎡
 건 폐 율 : 17.18%
 용 적 륜 : 22.22%
 건축구조 : 철골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 14.5m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패널, 화강석, 라임스톤, 로이복층유리(투명유리, 프렛유리)



입상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류연창 건축사

건축면적 : 3,703.26㎡
 연 면 적 : 4,775.22㎡
 건 폐 율 : 17.16%
 용 적 륜 : 20.74%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마감재 : 알루미늄패널, 로이복층유리



‘광주정신’의 건축적 형상화를 시도하는 “광주폴리II”

- 오는 7월까지 8개 광주폴리 준공, ‘광주폴리 I’의 11개 폴리카지 더하면 광주에 19개의 폴리가 도심 곳곳에 자리 잡게 돼
- ‘광주폴리 I’이 일제에 말살된 읍성터의 역사적 복원이었다면, 광주폴리II는 ‘인권과 공공공간’을 주제로 5·18의 역사적 공간을 환기시켜

지난 2011년, 광주시가 정체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고자 추진한 광주폴리 I 는 광주 동구 옛 읍성 터에 승효상 건축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건축거장들의 작품 설치로 큰 주목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쓰임새 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로부터 약 1년이 지나 1차 폴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총감독 및 참여작가를 확정하여 여러 차례 워크숍을 통한 세부계획을 하나둘씩 수립하고 추진·시행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오는 7월말 준공을 앞둔 ‘광주폴리II’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본지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광주폴리II 개요

- 추진기간 : 2012. 02월 ~ 2013. 07월
- 사업내용 : 폴리 8개 설치(공모작 포함)
- 설치위치 : 광주역 교통섬, 광주천변, 광주공원, 지하철 객차 등
- 총 감독 : 니콜라우스 히르쉬 (Nikolaus Hirsch/독일)
- 큐레이터 : 천의영(대한민국), 필립 미셀비츠 (Philipp Misselwitz/독일)
- 주 제 : 인권과 공공공간



▲좌측부터 니콜라우스 히르쉬 총감독, 천의영 큐레이터, 필립 미셀비츠 큐레이터



▲광주폴리II 설치장소

1 틈새호텔 (In-between Hotel)

서도호(대한민국)



- 장 소 : 이동식(도심 일원)
- 컨 셉 : 광주의 역사와 공간의 틈새를 이동하는 미니호텔
- 내 용 : 특정 지역에 정착된 호텔이 아니라 도시의 틈새를 따라 도심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도시민의 생활과 삶을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품임. 틈새 주변 정보제공, 인근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완성도 더함.

2 투표(Vote)

렘 쿨하스 & 잉고 니어만(네덜란드/독일)

지역건축사
심상봉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외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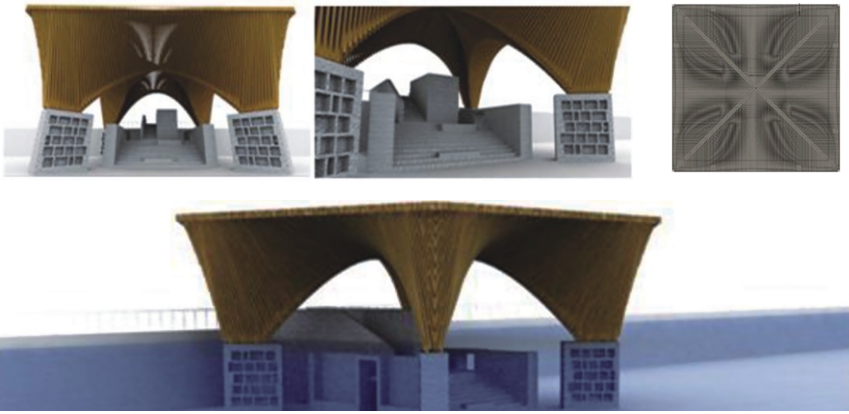


- 장 소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옆 도로
- 컨 셉 :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길거리 여론조사
- 내 용 : 렘 쿨하스와 잉고 니어만은 공공공간 속에서 개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지속적이고 새로운 시위형태인 ‘투표’에 주목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회관 뒷골목에 배너형식으로 자리 잡게 될 그들의 작품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보행 방향을 조절하여 예, 아니오, 중립 (Yes, No, Maybe) 중 한 가지를 투표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여론형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3 광주천 독서실 (Gwangju River Reading Room)

데이비드 아자예 & 타이에 셀라시(영국/미국)

지역건축사
강동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라움) +
이원일 건축사(이엘 건축사사무소)



- 장 소 : 광주천 천변
- 컨 셉 : 천변과 천(징검다리),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인문학 공간
- 내 용 : 데이비드 아자예, 타이에 셀라시는 광주천변에 열린 독서공간을 제안한다. 기존의 단순한 정자 구조물을 대신할 이 파빌리온은 광주천을 관통하는 징검다리과 천변 위 인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으로써, 책과 휴식을 매개로 한 도시와 그 주민들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4 유네스코 화장실 (Power Toilets / UNESCO)
수퍼플렉스(덴마크)

지역건축사
이순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장 소 : 광주공원 입구
- 컨 셉 : 프랑스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 상임위원 화장실 복제
- 내 용 : 수퍼플렉스는 광주공원에 독특한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다. 2011년, 광주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를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에 따라,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 중 학생 주도 프로젝트 자료에 등재된 바 있다. 파워토일렛은 유네스코와 광주광역시의 펠레야 땔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수퍼플렉스는 광주공원에 있는 낡은 화장실을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의 상임위원화장실을 복제한 새 화장실로 탈바꿈시킨다. 기본적으로 보통 화장실의 모습을 유지하는 외관과 복제된 화장실을 통해 원조와 복제의 관계, 독점성과 포용성 그리고 결국 권력과 일상의 진부함을 담은 사회기반시설로써 화장실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5 탐구자의 전철 (Autodidact's Transport)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인도)

지역건축사
선기택 건축사(주)HS그룹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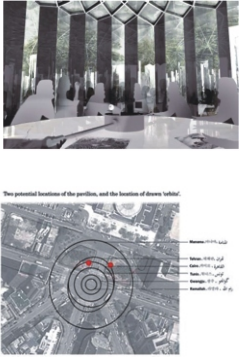


- 장 소 : 광주지하철 객차
- 컨 셉 : 지하철 객차를 이용한 비주얼아트
- 내 용 : 락스 미디어 콜렉티브는 사람들의 일상을 상징하는, 이동하는 광주지하철 객차를 색다른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일상적인 이동공간인 지하철에 특정적 테마 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상과 그래픽을 입혀 반복되는 습관이나 무의식을 떠나 특정테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6 혁명의 교차로 (Roundabout Revolution)

에알 와이즈만(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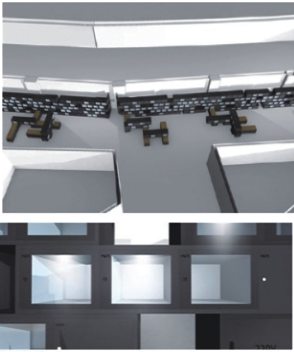
지역건축사
조두상 건축사(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장 소 : 광주역 앞 교통섬
- 컨 셉 : 인권을 얘기하는 미디어 커뮤니티 룸
- 내 용 : 에알 와이즈만은 사람들이 원탁 앞에서 담론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광주역 앞 로터리 교통섬에 계획하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 항쟁과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등 로터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혁명에서 착안한 그는 이번 폴리를 통해 라운드테이블과 라운드어바웃을 활용해 도시가 가진 사건들의 여파를 논할 뿐아니라 사회·경제·문화 이슈들을 자유롭게 논하는 폭풍의 눈과 같은 공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7 기억의 상자 (Memory Box)

고석홍 & 김미희 공모작(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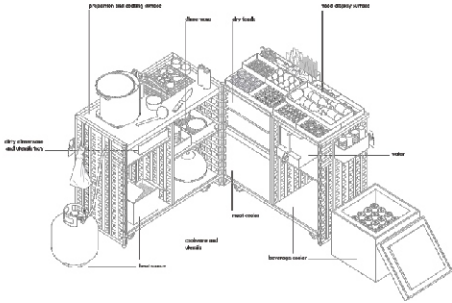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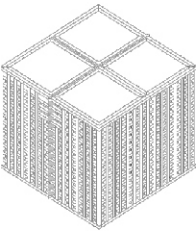


- 장 소 : 금남로 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인근
- 컨 셉 : 광주와 광주시민의 기억을 담은 미니 전시공간
- 내 용 : 공모작 당선자인 고석홍, 김미희는 광주 시민의 참여 의식을 그대로 재현하되, 과거를 불러오기보다 미래를 향한 기억을 환기시킬 한 상자가 될 메모리박스(Memory box)를 제안한 바 있다. 시민들이 박스 안에 자신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물건을 넣는 일종의 타임캡슐과 같은 작품으로 시민들의 박스분양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전시와 실질적인 락커 운영이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8 포장마차 (Cubic Meter Food Cart)

아이 웨이웨이(중국)

지역건축사
강필서 건축사(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장 소 : 이동식(푸른길 공원 및 도심 일원)
- 컨 셉 : 이동식 큐브형 푸드카트
- 내 용 :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은 포장마차를 컨셉으로 한다. 그는 광주의 포장마차가 가지는 기능적, 경제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영감을 얻어 이동식·조립식 푸드카트(Cubic Meter Food Cart)를 계획한다. 그의 폴리는 가볍게는 친구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즐기는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포장마차라는 소재를 통해 공공공간이 가지는 가볍지만은 않은 담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_ 4부

» 건축과 가구의 관계로 보는 3국 건축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1부 : 동양 3국의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본다. 크기로 보는 3국의 건축 - 2013년 2월
2부 : 배치로 보는 3국의 건축 - 2013년 3월
3부 : 건축 장식문양의 표현 방법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4월
4부 : 건축과 가구의 관계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5월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까지... 동양 건축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건축에서 가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이다. 건축과 가구는 항상 동반하는 생활용구이자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어떤 건축이라도 반드시 가구가 있어야 한다. 가구는 독단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이 아니라 건축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가구는 단순한 하나의 공예품이 아니라 건축과 마찬가지로 민족성을 표현해 주는 또 다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축물에 의해 가구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구로 인해 건축물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구는 오랜 시간동안 하나의 집단이 지역의 풍토와 생산 재료, 사회적 배경 등의 영향으로 형성되어온 시대의 결과물인 것이다.

가구 만드는 기술은 건축과 유사한 점이 많다. 비례와 수치는 인간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건축과 유사하다. 결구방법 또한 건축의 결구방법과 유사하다. 다른 공예품과 달리 가구는 구조적인 안전성과 기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반해야 한다. 어쩌면 이렇게도 건축과 똑같은가? 가구가 건축과 가장 유사한 점은 무엇보다도 항상 사용한다는 점이고, 일반 공예품과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한국, 중국, 일본의 건축에서 가구와 건축은 어떻게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가구가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특징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1) 중국

중국 건축에서 가구는 ‘동반성’이다. 중국 민족은 예부터 지금까지 입식생활을 해왔다. 주방은 물론이거니와 침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 그러니 맨바닥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침대는 필수품일 수밖에 없다. 주방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양 3국을 비교해 볼 때 가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침대, 식탁, 의자는 필수품이며 이밖에 중국 건축에는 특히 가구가 많다. 중국건축에서 가구는 건축의 일부분이다. 중국 건축에서 가구를 동반하지 않으면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가구를 보면 구조, 장식, 조형이 건축과 함께 동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구의 조형과 건축 조형이 같은 개념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어색하다. 가구와 건축이 서로 다른 형태나 조형으로 만들어지면 집과 가구 모두가 불편해 진다. 집 안에 가구가 많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이상한 가구가 되거나 이상한 집이 되기 때문이다.(그림1)



그림 1 중국 가구의 조형과 장식은 건축 조형이나 장식과 거의 유사하여 동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건축에서는 장식을 특별히 생각한다. 중국건축에 표현되는 장식은 가구에서도 같은 유형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각장식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데 조각장식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가구에 조각이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은 건축과 동반하기 위한 것이다.(그림2)



그림 2 중국 건축에서 보이는 장식요소는 매우 정교하고 공예적이며, 마치 가구장식을 붙여놓을 듯하다.

2) 일본

일본 건축에서 가구는 ‘일체성’이다. 일본민족은 오래 전부터 좌식생활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주거생활에서 침대, 의자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가구가 한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하지 않다.

건축에서 가구가 없어서는 안된다. 좌식생활이므로 식탁, 간단한 물건 보관함 등과 같이 몇 가지 이동식 가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축물과 일체화된 가구를 즐겨 만든다. 즉 옷장이나 이불장, 찬장,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건축물에 반침과 같이 불박이 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구를 만든다. 가구의 실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없다. 집을 만들 때 가구를 집에 일체화시키기 때문에 집짓는 목수가 가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

집의 구조체와 가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집짓는 목수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정상 가구 만드는 목수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일본의 가구가 다양하지 않고 공예품으로 발전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그림3)



그림 3 일본 가구는 기본적으로 집 구조체에 불박이로 일체화시키기 때문에 목수가 집과 가구를 모두 만든다

가구는 특성상 정교해야 한다. 일본의 목수는 이처럼 가구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도구가 정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교한 도구와 가구 만드는 기법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3국 중에서도 일본 건축은 매우 정교해 지는 쪽으로 변천되어 왔다. 건축물이 정교해지는 반면 공예가구가 발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그림4)



그림 4 일본목수는 가구를 만드는 기술로 건축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이 정교하게 변천되어 왔다. 합치의 오차 없이 만든 일본 건축의 차이 모습

3) 한국

한국 건축에서 가구는 ‘상대성’이다. 한국민족은 고려 말까지 입식생활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점차 좌식생활로 변화되어 갔다. 온돌의 보급과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다. 한국건축에서 가구는 건축과는 별도로 발전해 오게 된다. 즉 집짓는 목수(대목)와 가구짜는 목수(소목)가 따로 따로 활동을 해 왔던 것이다.

대목이 집짓는 것은 그리 정교하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비례와 선만 잘 표현하면 된다. 따라서 대목이 쓰는 도구는 그리 정교하지 않아도 집짓는 일이 가능하므로 도구를 개량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국 건축의 수수덤덤한 맛은 이런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림5)



그림 5 한국건축이 동양 3국 중에서도 가장 수수덤덤한 것은 비례와 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빼돌려진 서까래를 사용해도 이해가 된다.

반면 가구를 만드는 소목은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 정교하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늘 옆에 두고 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으면 찾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소목장은 끊임없이 도구를 정교하게 개량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전통가구가 다른 민족의 가구에 비해 공예품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국에서 건축과 가구는 마치 서로 관련 없는 것처럼 각각 별도로 발전해 왔지만 이 두 개가 함께 어울림으로 건축과 가구가 상대를 보완해 주는 상승작용을 해 주게 된다.(그림6)



그림 6 한국의 가구는 건축과 상대성을 추구하였다. 정교하고 장식적인 가구는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리는 상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정광민 건축사와의 인터뷰

광주 건축사사무소 서로의 대표 정광민 건축사. 광주 근·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인 중 한 사람인 故 김태만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며, 건축에 대해 조그마한 꿈과 희망을 품던 젊은 청년이 이제 이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이끌어 가는 한 조직의 수장이 되었다. 지난 2월 21일,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광주 / 건축사사무소 서로 정광민 건축사

반갑습니다.

광주건축가회 회장에 취임한 정광민 건축사입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는 광주 전남의 건축·예술·문화적 직능단체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시대에 건축의 문화적 가치향상과 새로운 건축 환경을 창조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故 김태만 선생 문하에서 시작한 건축의 길

광주공고를 졸업하고 故 김태만 선생님께 건축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 곳 사무실에서 훌륭한 선배들의 가르침까지 받아 바른 건축인으로서의 성장을 조금씩 해나갔지만, 배움의 한계점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갔다. 동진전문대를 거쳐 광주대, 전남대 대학원까지 무언가에 막힐 때마다 새로운 힘을 받고자 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르렀다,

건축철학에 대해...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 것을 먼저 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맞는 건축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이다. 설계를 할 때 평범한 도시 일상의 주변 환경을 건축주의 의뢰 조건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한다.

건축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건축주를 비롯한 사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때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 요즘에는 늦은 나이에 건축사 축구동호회에 들어가 젊은 건축사들과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지식들을 나눠 주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참 좋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창덕궁을 보고 싶어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건축사라는 자유스러운 성향의 직업 덕이기도 한 것 같다.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故 김태만 선생님이다. 건축설계가 흥미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기도 하다. 그 분은 항상 공부하시고 노력하시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내가 10년 걸쳐 깨우친 것을 자네들은 1년에 가져가야 한다"면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작품 설계에 있어서도 관습 등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스럽게 배치 구성하여 군더더기 없는 아주 평범한, 오래되어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

선후배 건축사에게 하고 싶은 말

크게 구분하여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수 년 동안 건축사의 길을 걸으면서 '건축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지 못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건축사들이 더 늦기 전에 설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의뢰 받은 설계의 초안을 주변 건축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건축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적이기 못한 개인적인 작가의식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하고 싶은 말

광주시의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도심의 서민주택지가 아파트가 아닌 개성 있고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마당이 있는 주택 건축을 권장하면 많은 건축사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직종의 건설기술자 또한 필요하게 되어 그것만으로도 도시 내부의 활성화와 경제적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의견들도 참고해 줬으면 한다.

끝으로 광주건축가회의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

지난 3월,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관심 속에 입학식을 갖고 진행되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봄학기가 6월 말에 끝나고 여름, 가을학기를 맞는다.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전시되는 제26회 광주 미술대전을 비롯하여, 2013 6대 광역시 + 제주도 건축교류전 참가, 2013 4회 광주 아트페스티벌 참가,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참가, 2014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준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건축가협 본협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2008년 대구, 2010년 부산, 2012년 대전에 이어 광주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우리 지역 건축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를 비롯한 건축유관 단체들의 많은 협조를 바래본다.



▲ 지난 5월 6일,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사무소에서 박신남 편집위원과 진행한 인터뷰



▲ 지난 3월 23일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입학식에서 개식사를 하고 있는 정광민 건축사

흙과 건축 이야기_1부

» 흙건축의 역사와 현황



황해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zederro@korea.com

1부 : 흙건축의 역사와 현황 – 2013년 5월
2부 : 흙건축의 효과와 구현방법 – 2013년 6월 예정
3부 : 국내의 현대적 흙건축 활동 – 2013년 7월 예정

‘흙’은 과거시대 우리의 주거 생활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건축 재료였지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다소 비효율적인 건축 재료로 인식되었다. 친환경, 생태건축이 화두고 되고 있는 현대 시대에 다시 ‘흙’이라는 재료가 주목받게 되고, 현대화에 필요한 연구가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본지에서는 2013년 5월호부터 7월호까지 3회에 걸쳐 국내 흙건축 분야의 권위자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황해주 교수의 원고를 게재한다.

우리는 생태건축이나 친환경건축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생태건축이라는 용어에 대해 ‘동태’는 아니고 ‘생태’라고 핀잔주던 필자의 대학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만큼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친환경적인 건축방법론이나 생태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건축담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흙건축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가장 부합한 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흙은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가공이 필요치 않아 운송과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흙건축의 역사와 현황, 흙건축의 효과와 구현방법, 국내의 현대적 흙건축 활동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재료 중 한가지인 흙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축재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그 흔적은 세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흙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06년,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시리아의 자델 무가라 유적지에서 BC10,000년에 지어진 흙벽이 발견되었는데, 유목생활을 하던 인류가 정착생활을 위하여 주변에서 가장 흔한 재료인 흙을 이용하여 집을 짓기 시작한 때부터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요르단의 에리코 유적지는 진흙벽돌과 흙다짐벽을 사용하여 지름 2킬로미터 이상의, 당시로서는 거대한 규모의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으며, 현존하는 대표적인 흙건축 도시인 예멘의 시밤은 고층으로 집적한 흙집을 통하여 사막기후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농경지 확보를 최대화하였는데, 16세기에 건립되었으며 7층 규모의 500여개의 건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7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흙집하면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만 남아있는 건축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유럽에서는 귀족을 위한 고성에도 많이 나타난다. 스페인의 유명한 관광지인 알함브라 궁전에는 높이 45미터의 흙벽이 있고 이러한 스페인의 흙건축 기술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전수되어 미국 뉴멕시코 주의 산타페 시에 남아있는 많은 건축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45m의 흙벽을 자랑하는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

프랑스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흙건축 공법으로 만들어진 주택이나 고성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기술을 기초로 하여 1970년대 초 석유파동 이후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흙이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되었으며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일다보 지역에 시범마을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흙건축으로 조성된 친환경마을로 알려져 지난 5년간 75개국, 3백여만 명이 방문하였다.



현대적 흙건축 시범마을인 프랑스 일다보

이러한 전통에 기반하여,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흙건축은 지어지고 있으며, 이 흙건축들은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서 흙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흙은 다양한 방식으로 단점들을 개선해 왔고, 현재에도 이러한 방식들은 유효하며 최근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 되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흙은 현대 건축재료로서 잠재 가능성과 가치를 수없이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흙건축은 과거의 건축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건축물로 구현해 보이며, 다양한 사례들이 현대 건축재료로서 흙의 잠재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연재료로서 흙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흙건축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들의 바탕 위에서 흙건축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흙건축은 과거의 낡은 건축양식이라는 고정적인 인식으로부터 미래의 지속가능한 건축양식으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건축재료로서 흙은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 따뜻한 감정, 쾌적한 느낌 등을 제공하며 감성적 영역에서도 그 가치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상, 질감 등은 건축 디자인 재료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전세계 흙건축 활동은 유네스코 흙건축 석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하고 연대하며, 교육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흙건축연구회가 활동하고 있다.

2011년에는 유네스코 흙건축 컨퍼런스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며, 2013년 5월에는 유네스코 흙건축 석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흙건축학교가 전북 완주에서 개교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흙건축 교육과 건축설계자와 시공자 등 전문가를 위한 강좌가 개설되어 흙건축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벽돌로 지어진 독일 하노버 발도르프 유치원



흙다짐으로 지어진 미국 주택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건축을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기를 권한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백석종 교수에게 청한 ‘감성건축’이야기.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백석종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들려오는 재즈풍의 음악과 멕시코산 원두의 커피 향기는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 주었다. 재즈 음악과 한 잔의 커피향기처럼 학생들에게도 감성이 담겨져 있는 건축학 교육을 펼친다는데, 스튜디오의 강의실 앞 공간에 직접 설치했다는 피아노와 연구실에 보이는 통기타가 그의 ‘감성건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다.

다음은 지난 5월 3일 진행된 백석종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화가이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선택한 건축의 길...

대학에서 건축을 선택하게 된 것은 화가이신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시절 미술선생님으로부터 미술반 가입을 권유받곤 했으나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대학에 가려는 생각은 없었다. 아마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아버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켜보면서, 강요는 안하셨지만 어렵פות이 느껴졌던 아버지의 기대를 외면하곤 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건축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타협의 결과이었던 것 같다.

우연한 기회에 대학 교수로 발을 디디게 되고...

대학시절에는 전공에 그리 심취해 있진 못했다. 그런 아쉬움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석사과정을 마친 후 건축사로서의 꿈을 위해 건축설계 사무소에 들어가 근무한 적도 있었다. 실무과정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2년 정도 지날 무렵 지도교수님의 권유로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대학에 교수로 발을 디디게 되며 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30대에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근무하다 고향인 전주대학교로 옮긴 후 25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다.

학자로서도 건축가로서도 어느 쪽도 충실치 못한 아쉬움

딱히 한눈팔지 않고 나름 열정과 보람으로 공부와 교육에만 진력해왔지만, 항상 건축설계에 대한 미련과 꿈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 아직도 언젠가는 건축을 시작하던 시절의 설렘과 바람을 이룰 것 같은 기대와 꿈을 간직하고 있다. 이따금 건축설계의 기회가 주어질 때면 많이 행복해하고, 한편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기도 한다. 어쩌면 학자로서도 건축가로서도 어느 쪽도 충실치 못한 아쉬움이 더 많다.

연세대학교 재학시절 지도교수이셨던 송종석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석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이셨던 송종석 교수님의 영향으로 주로 주거 및 단지계획분야를 연구를 하게 되었다. 주거 유형의 변천과 개발 밀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중국 조선족 자치주민가 조사, 공동주택 외장색채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도시 재생, 건축색채와 더불어 최근에는 전통주거와 관련된 연구와 전통적 요소의 현대건축설계에의 접목 등의 연구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국제 온돌학회 부회장으로서 고유한 온돌의 문화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효과 및 현대화와 미래화 전망에 관한 연구와 설계가 관심 분야이다.

존경하는 사람은 역시 故 송종석 교수님과...

내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학부 및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동안 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연세대학교 고 송종석

교수님이시다. 광주대학교에 부임하여 연구실을 배정받고 비닐 포장에 덮힌 책상에 앉아 송 교수님께 편지를 썼다. “교수님 감히 교수님을 닮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 편지를 간직하고 계셨다가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말미에 그대로 수록해 주셔서 퇴임 순간까지 칭찬과 격려로 나를 감동하게 하셨다. 또한 한건 건축사무소에서의 길지 않은 실무기간 동안 역시 엄하지만 따뜻하게 가르쳐주시고, 믿고 일을 맡겨주셔서 지름길로 실무를 터득케 도와주신 선배 김영덕 건축사님을 잊지 못한다. 그런 경험과 배움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제자들에게...

평소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건축전문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이전에 인간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소통과 배려의 가치이다. 두 번째는 건축가로서 자질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매우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건축을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기를 권한다. 열정적으로 즐기며 건축설계를 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적성과 노력,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그들 각자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복돋아 주는 교수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창조적 설계를 위한 스튜디오와 탄탄한 교수진 겸비)

전통과 문화 예술의 도시 전주에 있는 우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가 지향하는 디자인 특성화의 방향으로 이러한 전통성과 지역성이라는 주제를 설정한바 있다. 특히 전통건축요소의 현대건축설계에의 접목, 전통건축에 내재된 친환경건축 요소의 개발과 적용, 도시 재생 등의 과목과 설계스튜디오를 특화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 건축학과는 5년제로 건축공학과와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한 학년당 40명 총 2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임교수 4명 겸임교수 17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전임교수는 전원 국내외 설계 실무 및 학위 소지자이며, 겸임교수 역시 지명도와 풍부한 실무 교육 경험을 겸비한 대부분 서울 소재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실무 중심 스튜디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학년이 공유하는 오픈 플로어 형식의 작업실에 개인별 작업공간(로우 파티션 부스)이 갖추어져 24시간 개방되며, 스튜디오별 크리틱 룸, 출력실, 자료실, 암실, 사진 스튜디오, 세미나실, 탕비실, 샤워실, 모형제작실이 구비되어 있다.

취재 : 양우현 건축사기자 bh1493@chol.com
정리 : 박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백석종 교수

안녕하십니까.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백석종입니다.
저는 전주지역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대학·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약 2년간 설계사무소 설계과장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약 8년간 교수 생활을 했고, 현재는 저의 고향인 전주에서 교수직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 예술의 도시 전주에 있는 우리 전주대학교 건축학과가 지향하는 디자인 특성화의 방향은 전통성과 지역성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학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3일, 백석종 교수 연구실에서 본지 양우현 편집위원과 진행한 인터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설치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메인 강의실 앞 피아노



◀전학년이 공유하는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오픈 플로어 형식의 작업실

백석종 교수가 설계한 다수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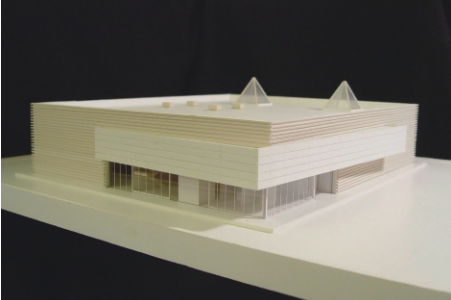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우체국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지구 영재교육원



▲전라북도 순창군 신성리주택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교육관

BIM 시대의 건축학도

선정준 대학원생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광주·전남·전북 지역 대학의 건축학과를 통틀어 최초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동아리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개설되었다. ‘새 BIM(동아리 대표 선정준)’은 BIM을 연구하여 설계 프로세스 적용 및 건축디자인 활용방안을 도모하고 또한 가상공간 설계 및 건설행위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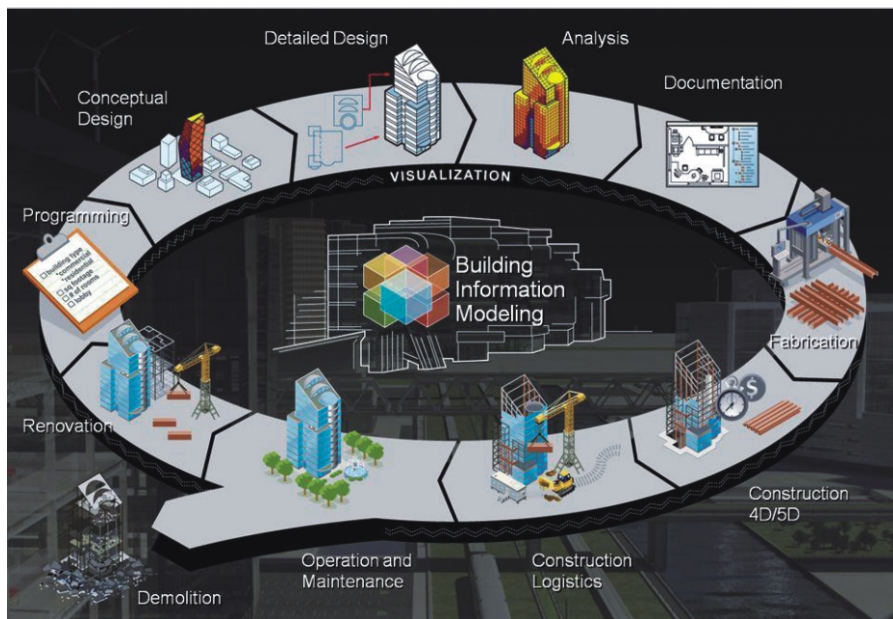
하는데 있으며 그동안 단절되었던 건축학과 건축공학 간의 전반적인 통합적 지식의 습득을 지향하고 있다.

건축은 도면이 없던 시절엔 건축가 개인사고에 의한 코드로 가상건설행위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들의 언어는 점차 프리핸드스케치에서 제도로 2D도면에서 3D형상 모델로 발전되어 지금은 모든 정보가 포함 된 BIM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에 있어서 BIM의 필요성은 국가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도 강력히 나타나고 있으나 오늘날 대학의 미비한 BIM교육의 현실 속에 건축학과 학업을 수행중인 학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BIM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전국각지에서 BIM에 관한 여러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지방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BIM을 접하기 위해서는 방학기간 중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교육을 받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학업을 수행중인 건축학과 학생들은 BIM이 건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큼을 의미하고 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대학의 BIM교육의 도입이 요원하기만한 현실 속에서 대학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건축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BIM고찰 및 교육방안을 모색하고 스터디그룹을 형성하여 연구해나가는 것이 BIM시대를 맞이하고 이끌어갈 학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지출처: <http://buildipedia.com/aec-pros/design-news/the-daily-life-of-building-information-modeling-bim>

건축학 전공자의 비애

김경훈 학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마음 편하게 약속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약속을 끝내고 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얼마가 있고, 그 시간 동안 설계를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게다가 타과와 달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뿐 아니라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심지어는 방학까지도 일정이 빽빽하게 진행된다. (물론 본인이 페이스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대부분 방학 중 공모전 참여 유무로 제한된다.) 일주일에 집에서 편히 잠을 자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는 경우도 있다.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계획을 짜서 여행을 가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되는 일상이 건축학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경우가 많다. 놀러가자고 계획을 잡아놓고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시간에 쫓겨 연인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해 퇴짜를 맞는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이야기에 혹자는 ‘그건 너(희)가 시간 조절을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자신의 전공)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되묻고 싶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본 적이 있는지’,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고는 하나, 그 공부에 지쳐 훗날 그것을 원망하거나 손에서 뉘버린다면 다 무슨 소용인지’ 말이다.

故 정기용 건축가의 전시회를 다녀오다.

박중성 학생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가 정기용을 인식하다.

내가 정기용 건축가님을 처음 알게 된 건 아마도 한해 전일 것이다. 그것도 “말하는 건축가”를 보고 과제로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 때문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외국의 유명건축가, 거장들, 프리츠크 수상 건축가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들의 건축이 좋다고 생각했고 무작정 외국의 건축가들을 따라 하고자 했던 것 같다..(웃음) 정기용씨를 알기 전까지는...

말하는 건축가를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문제도 이 땅에 있고 해법도 이 땅에 있다.”라는 말은 정기용씨의 강연 중 항상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문제와 해법은 바늘과 실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이고 그 해법은 가까운 곳에 있기 마련인데, 일부 건축학도들을 보면 나처럼 우리고유 건축의 정체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좋은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이 답인 것 마냥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 남기셨던 말씀 “땅, 물, 공기, 바람, 햇살, 나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는 건축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았으며, 사소한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배려할 줄 알며 자신의 철학과 건축의 자부심이 가득한 건축가였다.

대표적으로 그가 죽기 전까지 했던 무주프로젝트를 보면서 건축가라는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전환점이 되었다.

#. 그가 남긴 흔적들을 기억하다.

따스한 바람과 햇별이 어울리던 봄날, 나는 정기용 선생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서 미술관을 찾았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그림일기: 정기용 아카이브”는 그가 미술관에 기증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 삶과 문화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해보는 전시회이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카이브 전시관은 몇 개의 방이 나열된 형태로 각각의 공간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갖고 전시를 하고 있었다. 총 8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건축의 뿌리, 2.거주의 의미, 3.성장의 공간, 4.추모의 풍경, 5.도시와 건축, 6.농촌과 건축, 7. 정기용 도서관, 8.정기용의 강의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대별 순으로 각각의 콘셉트를 잡았는데 되돌아보니 여기에서도 관람객들을 위한 동선의 고려와 자신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배려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시작은 서울대 미술대학시절인데 그는 처음에 건축이 아닌 미술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으며 그가 건축을 하기위해 흘렸던 피와 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후 프랑스로 유학을 가면서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사상적 뿌리가 되는 문화와 글을 많이 접했다.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의 의미를 상실한 채 균질한 공간으로, 단지 집이 아닌 부동산 가치에만 집중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거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리고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을 시작으로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에 이르기까지 어린이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건축 언어로 작업하여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자 했으며, 그에게 학교와 같은 공공 건축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고 회상할 가치가 있는 기억의 보고’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전시회의 주제가 ‘그림일기’인 만큼 그가 남긴 드로잉의 흔적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종종 보이는 글과 메모들을 읽어보며 심취해 보기도 하고, 모형들을 보며 정교한 디테일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번 아카이브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왠지 모를 아쉬움이다. 한번 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서울을 가게 되면 몇 번은 더 찾아가서 봐 볼 생각이다. 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겠지...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 정기용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번 전시는 9월 22일까지며 관람료가 무료라서 여유가 있으면 한번쯤 보기를 꼭 권하고 싶다!

부부의 날(5월 21일), 그 새로운 의미(광주 시민의 날)를 찾아서

가족의 달 ‘5월’이라 하면 대부분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0일 성년의 날을 떠올리겠지만 또 하나의 특별한 날이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지지는 않았지만 1과 1이 만나 2가 아닌 1이 되는 날.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

하지만 5월 21일 ‘부부의 날’이 광주광역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이유는 올해로 48번째를 맞이하는 ‘광주 시민의 날’이 바로 5월 21일 이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의 날’은 본래 1986년 광주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한 날인 11월 1일로 지정되어, 매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어 왔었다. 그러나 기존 시민의 날(11월 1일)이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보다 광주광역시의 상징이 부각되는 날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당시 민주화 항쟁 30년을 맞이하여 민주화의 중심 도시 광주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당시 계엄군의 전남도청(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일원) 철수일인 5월 21일로 변경하고, 그해(2010년)부터 다가오는 21일을 새로운 광주 시민의 날로 그 탄생을 알리게 되었다.

광주시는 매년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그날의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선 광주시민의 정신을 기리고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광주공동체 구현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의 성장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에펠탑’을 세우고, 200주년을 기념하여 ‘루브르 박물관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민주화 혁명의 역사적인 날을 다양한 축제와 국가적인 문화재로써 그 위상을 승화시켜 전 세계 여행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로 인한 엄청난 국가적 이윤의 창출을 감히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광주

민주항쟁을 알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커녕 광주의 시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있었는가? 아마도 광주 시민이면서도 광주 시민의 날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과 1이 더해 1이 되어 우리 사회를 만든 것처럼, 나의 피와 땀에 이웃의 피와 땀이 더해져 이 도시를 지켜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써 다 같이 하나 되려는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상징성을 드높이기 위해 ‘5·18 민주항쟁’의 정신이 담긴 날로 광주 시민의 날을 변경한 만큼, 광주의 역사성을 바로 알리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의 관심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광주 시민의 날은 광주의 무한한 발전과 나아가 국가적인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은 가졌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혁명 못지않은 탄탄한 역사적 민주항쟁 스토리가 있고 에펠탑 못지않은 아름다운 5·18 민주항쟁추모탑이 있다. 루브르 박물관처럼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그 의미만큼은 탄탄한 5·18 추모관 및 기념문화관, 공원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광주시민의 노력과 관심만이 남았다.

한날 작은 도시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도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5월 21일. 그날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 날이자, 너와 내가 광주시를 지켜낸 날임을 기억하자.



[광주건축사회 업무대행자 선정프로그램 신버전 사용 방법 안내]

- ▶ 운영 사이트 : <http://kira.yodev.net/> ▶ 운영 시작일 : 2013. 5월 중 예정/테스트 운영 후 ※프로그램은 테스트 운영 후 일부분 변동될 수 있음
- ▶ 문의 : 광주건축사회 업무대행 담당자 527-8891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사)한국주거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

— 지난 4월 20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 5월부터 회장 취임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가 지난 4월 20일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7대 회장에 선출됐다.

(사)한국주거학회는 주거학의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 및 연구를 통한 학문의 발전과 주거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된 학술단체이다. 현재 약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연간 6번의 논문집 발간과 2번의 주거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손승광 교수는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전북대학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3년 연속 최우수교육기관 선정

— 5월 중 전국의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공고 예정



▲한옥설계이론교육(좌), 한옥교육생 활동 - 청소년 한옥캠프 재능기부(우)

전북대학교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13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는 2011년부터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대학교는 심사과정에서 그동안의 한옥교육실적과 한옥관련시설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압도적인 점수 차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선정되어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는 업적을 이루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를 중심으로 2년 연속 교육기관에 선정되어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그 동안 전북대학교는 ‘가장 한국적인 대학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교육과 한국형 캠퍼스 구축사업을 실시하였다. 한옥교육으로는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방학 중에는 국제학교를 개설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창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실습장을 설치하여 한옥기능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학교는 전국의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중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6개월 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문의 :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063-219-5221)

2013년도 ARCASIA 건축상 공모 안내

1. 참가자격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2. 대상건축물 : 아카시아 이사회 중 수상자 발표 ('13. 10월)로부터 최소 2년 전까지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3. 제출부문 : 총 10개 부문
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건축물 개요, 도면, 사진자료 등
☞ 신청서 및 운영규정은 ARCASI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제출자료는 전자포맷(e-format)으로 제작되어야 함
5. 제출마감 : '13년 5월 24일(금)까지
6. 참 가 비 : 무료
※ 선정작품 송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시 자부담
7. 작품 제출처 및 문의
제출: 이메일 (secretary@kira.or.kr)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협력팀 이소정
Tel : 02-3415-6828 / Fax : 02-3415-6899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ARCASIA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제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주제 : 변화變化와 대응對應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계획)

초대작가부문

공모목적 : 농촌지역과 관련한 창의적·미래지향적 철학을 가진 건축가 선정 (7인 이내)
공모자격 : 건축설계분야 교수 및 전문가
대 상 지 : 국내 농촌지역(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공모일정 : 출품의향서 접수 5월6일(월)~6월14일(금),
이메일접수(hyuni3272@daum.net)
초대작가발표 : 6월21일(금) / 최종작품 제출 : 8월19일(월)
시상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 위촉장 수여



준공건축부문

공모작품 : 2008년 1월1일~2012년12월31일 사이에 준공완료 된 농촌지역 건축물
공모자격 :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설계자 및 건축주
대 상 지 : 국내 농촌지역(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공모일정 : 참가신청 : 5월6일(월)~6월14일(금), 온라인 등록
1차 작품접수 : 6월14일(금) / 2차 현장심사 : 7월초 예정(추후 공지)
시상내역
- 대상(1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농촌지역 아름다운건축물”명판 수여
- 본상(4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상 / “농촌지역 아름다운건축물”명판 수여

계획건축부문

공모주제 : 변화變化와 대응對應 / 지역정체성을 살린 마을정주환경 리모델링 계획
대 상 지 : '13년도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신청지구 (8곳 외)
공모자격 : 농촌주거와 생활에 관심이 있는 자
공모일정 : 참가신청 : 5월6일(수) ~ 7월10일(수), 온라인 등록
작품접수 : [1차] 7월11일(목)~7월12일(금)/[2차] 8월20일(화)/[3차PT] 8월 마지막주(추후 공지)
시상내역
- 대 상(1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500만원 / 해외견학
- 최우수상(2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상/각 300만원/ 해외견학
- 우 수 상(4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상/각 200만원/ 해외견학
- 입 선(다수)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 한국농촌건축학회회장상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주 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건축학회
후 원 : 국토교통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문 의 : http://arch.ekr.or.kr / 자세한 사항 및 공모요강은 홈페이지 참조

2013년 제2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일본 북해도 건축문화탐방)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3년 6월 29일 (토) 오전 5시 ~ 7월 2일 (화) 오후 7시
□장 소 : 일본 북해도 지역(숙박 : 특급호텔)
치토세, 삿포로, 노보리 벳츠, 도야
□모집대상 :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모집인원 : 25명 이내-선착순
□모집기간 : 2013. 5. 2 (목) 09:00 ~ 5. 20 (월) 18:00
□참 가 비 : 143만원/1인
입금계좌 : 신한 131-015-175565 광주건축사회 (입금시 : 성명 기재)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기 간 : 2013. 5. 2 (목) 09:00 ~ 5. 20 (월) 18:00
접 수 : 전화(062-521-0025~6)
메일 접수(광주건축사회 대표메일 : gjkira@empal.com)
☞ 접수 후 여권 사본 팩스(062-528-0026) 또는 대표메일로 전송

일본 북해도 3박4일 / 부산 출도착



₩1,430,000원 (특급호텔 이용)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유류할증료, 택스, 현지 숙박및 식사,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전용버스,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 봉사료, 광주-부산(국내 왕복 교통비)
※싱글이용시 1일 70,000원 추가비용있습니다.



▲오타루 운하



▲오르골 공방



▲오도리 공원



▲삿포로 팩토리



▲북해도 개척마을



▲지옥계곡



▲사이로 전망대



▲곰목장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광주전남지역 건축문화탐방 진행
- 지난 5월 2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지역 건축인 40여명 광주전남지역 건축물 답사



부산광역시 한성군 건축주택담당관을 비롯한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관계자 40여명이 광주전남지역 우수 건축문화 답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시를 방문했다.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건축에 담긴 문화읽기”라는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폴리, 사직공원, 양림동 근대건축, 소재원,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을 답사했다. 광주지역에서 이번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이 동행했으며,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안길전 회장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안용훈 과장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의 건축문화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부산건축문화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사, 교수 등 건축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우수 건축 탐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13년 제1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지난 4월 2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시민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조성룡 건축사 강연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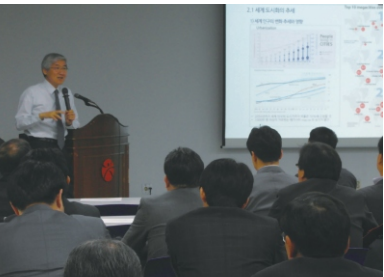


광주시는 사람중심의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2013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초청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일반시민 및 건축사, 공무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삶을 위한 도시디자인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조성룡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의 강연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추후에도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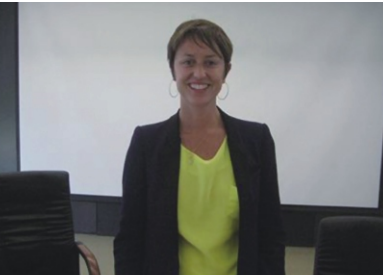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2013년 제3회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지난 5월 3일 광주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 초청 강연 진행



광주시는 도시계획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3일 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일반시민 및 도시계획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동향’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구자훈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원인’인 인구 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계 도시화의 추세,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영국, 일본, 미국 등 ‘외국의 도시재생 동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주비엔날레 제10회 예술총감독에 제시카 모건(영국) 선임
- 광주비엔날레재단, 지난 4월 26일 제130차 이사회의 열고 예술총감독으로 결정



2014년에 열리는 제 10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Jessica Morgan)이 선임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30차 광주비엔날레 이사회에서 2014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영국 런던 소재의 세계적 미술관인 테이트 모던의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제시카 모건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미술사로 학사학위를, 런던 커톨드(Coutald)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여 년 간 시카고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등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실험성 있는 전시를 기획해왔다.

광주·전남지역 건축·건설관련 12개 단체가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 창립
- 광주건축사회, 전남건축사회 참여, 초대 회장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박치영 회장 선출



지난 4월 22일 광주센트럴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안길전 회장과 전라남도건축사회 국원식 회장,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박치영 회장 등 12개 건축·건설단체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가 출범했다.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호협력과 윤리경영, 사회공헌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박치영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역건설단체연합회로써 회원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생발전과 나눔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건설산업환경에 공동 대응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회원 상호간 협력증진과 친목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윤리경영과 사회공헌 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과 국가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공정사회 구현과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다짐했다.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전라남도건축사회를 비롯하여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한국전기공사협회전라남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전남지회 등 12개 단체이다.

2013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전남지역에서 개최
- 지난 4월 26일, 27일 양일간 전남 순천과 광양에서 열려, 경기청팀 우승



2013 제9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 팔마경기장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광주, 전남, 전북 팀을 비롯하여 전국 건축사축구동호회 22여개 팀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틀간의 치열한 경기결과 경기청과 경남, 송파, 충북 팀이 4강에 진출했고, 결승전에서 경기청팀과 경남팀이 겨뤘 예선부터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인 경기청팀이 우승컵을 드높였다.

경기청팀은 작년 9월,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가 주관했던 제8회 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2013년도 광주·전남 건축사실무 교육 안내

- 전남건축사회(5월 교육)
- 1)교육기간 : 2013. 5. 23 (목) ~ 5. 24 (금)
- 2)교육장소 : 순천 청암대학교
- 3)교육일정

교육일		과목명	담당교수
일 정	수업시간		
5/23(목)	13:30 ~ 15:00	에너지절약 설계계획서 작성기준	정종수/에너지관리공단
		친환경소재 휴건축의 기본개념과 시공	황혜주/목포대학교
	16:00 ~ 17:30	에너지절약 설계계획서 작성기준	정종수/에너지관리공단
		친환경소재 휴건축의 기본개념과 시공	황혜주/목포대학교
5/24(금)	13:30 ~ 15:00	에너지절약 설계계획서 작성기준	정종수/에너지관리공단
		친환경소재 휴건축의 기본개념과 시공	황혜주/목포대학교
	16:00 ~ 17:30	에너지절약 설계계획서 작성기준	정종수/에너지관리공단
		친환경소재 휴건축의 기본개념과 시공	황혜주/목포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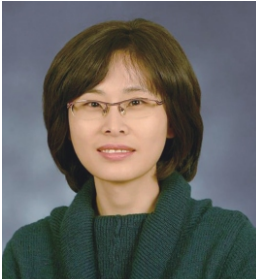
- 광주건축사회
- 1)교육기간 : 2013. 6. 15 (토) ~ 7. 20 (토) / 5회
- 2)교육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3)교육일정

구 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15 (토)	6.22 (토)	7.06 (토)	7.13 (토)	7.20 (토)
1교시 (13:00~13:55)	시대변화에 따른 건축정책과 법령정보 / 조한권(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장)				
2교시 (14:00~14:55)	건축설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활용 / 강병근(건국대학교 교수)				
3교시 (15:00~15:55)	친환경 건축설계 및 에너지절약설계 / 이아영(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4교시 (16:00~16:55)	건축설계 관련 BIM과 비정형 건축의 동향 및 프로세스 이해 / 이원교(이엘 건축사사무소 대표)				
5교시 (17:00~17:55)	내진설계와 시뮬레이션 / 최재혁(조선대학교 교수)				

※17일 신청 가능 인원 : 66인 이내 / 상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광주건축사회, 자문세무사에 이은주 세무사(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 선임

－ 지난 4월 15일 제4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임기 1년 자문세무사로 위촉 의결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4월 15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제 4회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1년의 자문세무사로 이은주 세무사(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를 위촉 의결했다.

이번 자문세무사 위촉은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건축사 회원 사무소의 세무 및 회계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등 회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은주 세무사는 원광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광주시 동구청 및 북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광주시 북구청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광주지방세무사회 조정계산서 감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 : 광주시 서구 화정동 808-18 / Tel.062-383-0002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 － 김종호 건축사 / 동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북구 자동차로 48번길 3층
- － 김호신 건축사 / 삼영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북구 자동차로 48번길 3층

* 결혼

- －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4월 28일 (일) / 아들 결혼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 손지연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6-2

* 재입회

- － 황인주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덕월동 9-25

* 전입

- － 주경경 건축사 / (주)상원기술개발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10-3
- － 김도현 건축사 / 다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44-37

* 결혼

- － 김병삼 건축사 / 제일 건축사사무소 / 4월 14일(일) 차녀 결혼

* 부고

- － 남윤홍 건축사 / 해동 건축사사무소 / 4월 19일(금) 빙모상
- － 최행욱 건축사 / 세울터 건축사사무소(주) / 4월 23일(화) 부친상
- － 박종경 건축사 / 가야 건축사사무소 / 4월 24일 (수) 모친상
- － 박금식 건축사 / 동도 건축사사무소 / 4월 30일 (화) 빙모상

News 광주·전남·전북 5월 지역축제 안내

- ▶05. 10 (금) ~ 05. 12 (일)까지 익산 서동축제 2013 -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
- ▶05. 11 (토) ~ 05. 12 (일)까지 제20회 순천낙안민속문화축제 -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 ▶05. 11 (토) ~ 05. 12 (일)까지 제46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 전북 정읍시 황도현전적지 등
- ▶05. 11 (토) ~ 05. 19 (일)까지 제6회 전주포토펙스티벌 -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05. 14 (화) ~ 05. 19 (일)까지 제39회 보성다향제 - 전남 보성군 한국차소리문화공원
- ▶05. 16 (목) ~ 05. 19 (일)까지 제14회 녹동바다 불꽃 축제 - 전남 고흥군 녹동항 특설무대
- ▶05. 24 (금) ~ 05. 26 (일)까지 제7회 광산우리밀 축제 -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등
- ▶05. 24 (금) ~ 05. 26 (일)까지 제15회 장성홍길동축제 -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법 / 령 / 정 / 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 2013.04.18)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23. 공포·시행)되어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축공사 감리 시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감리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법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에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 제외 (안 제2장 2.5 개정)

(1)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에 지어지는 건축물 중 중요도(특)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어 건축공사 감리 시에 업무 혼선이 발생

(2)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제외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는 등 법적 통일성 유지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 (1) 제2장 2.7.2 2) (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2)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3호, 2013.04.17)

1.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분양를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4호, 2013.04.17)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 제1항제2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3 광주폴리 II

오는 7월말 준공을 앞둔 광주폴리 II가 본 의미와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 철 동일교역(주)	1,000,000원
신정철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500,000원
이길환 (주)길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정명철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느낌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
(Petronas Twin Tower)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에 걸쳐있는 국가로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동남아에서도 적도 바로 북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북쪽으로 타일랜드, 동쪽으로는 필리핀이 인접해있다.

주민은 말레이계, 인도계가 많고 그밖에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중국어, 타미르어, 영어도 사용된다. 기후는 열대우림형 기후로 한국의 여름 날씨가 1년 내내 계속된다고 보면 된다. 종교는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 그리스도교가 있으며 1인당 GDP 즉, 1년간 국민 총소득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8423달러였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국으로 국가 원수는 군주로 왕위가 세습되며, 국왕을 상징하는 색은 황금색으로 일반사람들은 황금색과 ‘로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9개 주가 5년에 한 번씩 임명하며 정부의 장은 수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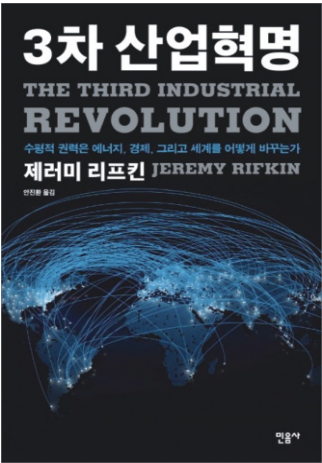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상징건물인 페트로나스타워(Petronas Twin Tower)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타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잠시나마 가졌던 곳으로, 처음부터 이와 같은 타이틀을 목표로 삼았던 건축물 중의 하나다. 페트로나스타워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당연히 그 거대한 규모에 있다. 88층으로 구성된 이 쌍둥이 타워는 말레이시아의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의 본사로 두 타워 중 한 채 전체가 본사 건물이다.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양의 두 타워는 지상에서 170미터 높이에 있는 41층과 42층 사이에 난 58미터 길이의 ‘스카이트릿지’로 연결된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미국 건축가 세자르 페리가 디자인한 이 타워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다. 이슬람 미술에서 볼 수 있는 모티브를 기본으로 하고, 외부 마감은 전체적으로 스텐인레스와 유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 빌딩은 수도를 상징하고, 1관은 일본이 2관은 한국의 삼성과 극동건설이 시공, 반년 차이로 한국이 늦게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88층 위 피뢰침은 한국이 먼저 시공을 완료하였고 ‘스카이트릿지’도 한국이 시공하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시공한 것으로 소문이 났고, 이후로 한국의 건설업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시공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내가읽은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났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온 저명한 사회 사상가이다. 1994년부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 스쿨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경제동향 연구재단(the Foundation on Economic

Trends)’을 설립해 사회의 공공 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계몽 운동 및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3차산업혁명은 석유와 다른 화석 연료를 동력으로 한 산업혁명은 위험천만한 대단원을 향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가스와 식량 가격은 오르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고, 개인과 정부의 부채는 급상승하고, 그 회복은 한없이 더디다.

세계 경제가 역사상 두 번째 위기 국면에 부딪히면서, 인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계획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석학 제러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 공장에서 스스로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인터넷’ 안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마치 우리가 지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청사진을 펼쳐 보

인다. 그는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수천 개의 비즈니스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평적 관계가 정립되고,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직적 권력은 협력적 네트워크와 분산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력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석유 시대의 패러다임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는 전 지구적인 변혁의 흐름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인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읽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planning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제러미 리프킨 지음, 안진환 옮김
민음사 제공/김미영 건축사 정리

현장의 눈



부러진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계단

광주의 추억을 간직한 사직공원 팔각정이 헐리고 새로운 전망타워가 들어서게 됐다. 사업 추진에 앞서 건축물의 보존과 문화적 재활용 등의 다양한 논의가 우선시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일방적인 행정을 통한 계획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일부 보존하여 진행하기로 했으나, 그 일부가 공사과정에서 저렇게 훼손되어 버렸다.

곽승국 전담기자

광주사직공원 전망타워 공사현장에서...(2013. 5. 2)

건축사 Photo



5월은 푸른 꽃들의 향연이다.
길을 걷다 보면 흐드러지게 핀 꽃.
그 꽃을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상념에 잠긴다.
남해 다초지에서...

박종호 건축사/전남

백재봉 건축사
백 건축사사무소

한편의시

청수다방
오양에게

문창식 시인/건축사
우리 건축사사무소

불타는 눈빛을 잠 재우거라.
두려워 떠는 온실 속 애호박의 저려움이다.

이마에 짙어바른 바다색의 꿈
보자기에 숨겨둔 너의 비수에
어찌도 九尾狐의 꼬리 감추느냐

계단 난간에 기댄
그 허리에 거론 하루를 풀고

핸드백을 풀어헤친 變身의 작업
아무도 몰라라
아무로 몰라라

꼬리를 붙였다 뗐다 하는 그 신통한 사랑
오늘은 얼마 팔았누

성긴 머리를 두 손으로 찢히고 나면
고요한 여인일진대

30번 시내 버스에 실려가는
오양은
가벼운 나비되어
광주를 나른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시공사례사진



주력제품 : FBD PANEL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시공사례사진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